



[유가공동향] 폴란드, 천연가스 공급량 제한에 치즈 생산 중단 위기

- 드라이아이스 제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량 부족으로 보관 및 운송 피해 우려



폴란드의 천연가스 공급량 제한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치즈는 물론 맥주 및 탄산음료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최근 폴란드 최대 화학회사인 Azoty와 Anwil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질소 비료 및 암모니아 생산을 중단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량도 감소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치즈 보관 및 운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

드라이아이스는 치즈 등 상하기 쉬운 유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유제품 유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.

유업계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탄산음료 및 맥주 생산업체도 생산량을 크게 감축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에 보조금 마련 등 긴급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. < 출처 : notesfrompoland.com, 8월 26일자 >

[낙농경영] 뉴질랜드 낙농업계, 대규모 홍수에 원유 폐기 발생

- 착유장 수리, 도로 재건 등 피해 복구 총력



뉴질랜드 남섬에 100년 만의 폭우로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낙농업계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최근 뉴질랜드 최대 유가공 협동조합인 폰테라에 따르면, 집중 호우로 도로가 유실됨에 따라 원유 집유가 중단된 바 있다. 또한, 현재 70여개 목장이 고립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의 특성상 제시시간 안에 집유가 어려워 원유가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일부 지역에서는 1년 전 발생한 홍수 피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되면서 비축해 놓은 사료가 물에 떠내려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에, 낙농가 연합(Federated Farmers)은 긴급 사료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, 착유장 수리를 위해 헬리콥터를 이용해 목장에 진입하거나 유실된 도로 재건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 출처 : ruralnewsgroup.co.nz, 8월 30일자 >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